광복 70주년 기념

2015 통일을 만드는 청년포럼

THE UNIFICATION YOUTH FORUM

패널소개

박현우
- 사단법인 한반도통일연구원 사무국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통일학 석사과정

주승현
- 명지대학교 외래교수
- 연세대학교 통일학 박사
- 북한군 심리전 제압방송 요원

김인성
-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사무국장
-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졸업

승설향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생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SBS스페셜 '어서오시라요' 출연

구정우
- 연세대학교 통일학 석사과정
- 중화인민공화국

주제 '통일의 미래상과 청년의 역할'

11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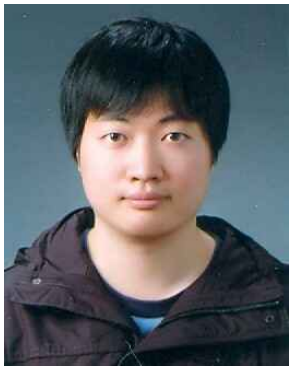
주최 동아시아청년연맹

주관 (사)한반도통일연구원 THE KOREA UNIFICATION INSTITUTE (KUI)

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국민대통합위원회 · 통일부 · Hi Seoul

【 발 제 문 1】

‘통일의 미래상과 청년의 역할’



김인성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사무국장

- 최근 북한의 동향과 통일을 위한 청년의 역할
- 우리나라 청년문제와 북한의 청년문제
- 청년이 알아야 할 북한인권, 통일준비와 관련한 내용과 미래상

Ⅰ. 북한인권실태

o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수많은 탈북자가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북한 내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외부 세계에 노출

o 한국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하는 단체가 설립되고, UN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계기 성립

o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03년 설립되어 북한 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북한 인권에 관련된 모든 자료–해외 탈북자 인터뷰, 국내 입국 탈북자 전수 조사, 탈북자 수기, 잡지, 보고서, 인터넷 신문, 활자 신문, 북한으로부터 입수되는 조서, 고문 도구 등–을 조사, 수집, 분석을 거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운영

– 현재 5만 6천여 건의 북한 인권 침해 사건과, 사건 관련된 3만 2천여 명의 인물 데이터(DB)가 축적되어있으며, 북한 인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국제 인권 규범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

o 이에 북한의 5만 6천여 건의 인권 침해 사건을 분석해 보면, 불법체포, 불법구금, 고문 및 폭행, 실종, 납치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이 61.5%(34,373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개처형, 영아살해, 고문과 만행으로 인한 사망 등을 포함하는 '생명권'이 10.8%(6,059건)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파악

o 북한 정권의 폭압적인 통치가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공포를 통해 북한인민을 철저히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o 북한 공포 정치의 핵심 작동 기제는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를 들 수 있음. 공개처형은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집행

- 보통 3인의 처형 집행수가 사형수의 머리, 가슴, 복부에 각각 3발씩 총9발의 총알을 쏴서 처형
- 처형 장소는 미리 동원된 군중으로 채워지며, 사형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 직장동료, 이웃 등이 가장 앞줄에 위치
-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당국의 방침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

o 공개처형과 달리 정치범수용소는 '보이지 않는 공포심'이라 할 수 있으며, 감옥형태가 아닌 시 단위의 면적에 철조망을 쳐놓아 수감자들을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

o 이는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반대파 세력의 숙청, 김정일의 후계자 세습 과정에서 방해 세력 축출, 사회 반동분자들을 격리시키는 용도로 사용

- 죄에 따라서는 본인뿐만 아닌 가족이나 심지어는 3대가 연좌제로 모두 잡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반대 의사 고려 불가
- 현재, 최소 4곳의 지점에 10만 명의 수감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

o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을 유지

- 성분과 토대에 따라 전 주민을 3대 계층 56개 부류로 분류하고 있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토대에 따라 운명이 결정
- 부모가 광산 노동자이면 자녀도 광산 노동자 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가 극히 어려우며, 국가의 자원 배분도 성분과 토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

- 고난의 행군 시기 토대가 나쁜 추방자들이 몰려 있는 함경북도 같은 지역부터 배급을 중단하여 다른 지방보다 아사(餓死)비율이 높게 파악

o 그 밖에도 이동의 제한으로 여행증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려우며,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신념을 표현할 권리가 부재

o 위와 같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인권 침해의 백화점'과 같으며, 모든 종류의 인권 침해가 발생

Ⅱ. 최근 북한 인권 동향과 북한 청년 문제

o 2013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되고, 2014년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전쟁 상태가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는 최초 발족
-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반영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권 발생의 원인과 책임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그 수하 조직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하여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

o 북한은 당장의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추궁과 비판을 피하고자 일시적으로 인권 개선에 나서는 모습을 표출

- 구체적으로, 공개처형 수를 줄이고 있으며 일반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문과 폭행을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감옥 수감자의 사망률을 낮추고자 고심
- 그러나 비공개처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치범으로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한 잔인한 고문과 폭행은 변함없이 자행
- 국경 통제 및 강제북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권 개선의 진정성이 의심

o 북한의 20~30대는 고난의 행군 시기 유년기를 거쳤거나 그 이후에 출생한 세대로서 이전 세대와 단절

-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 수령에 대한 우상화 관념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장마당의 발달을 체험하면서 성장하여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적 태도를 보유
- 북한 사회가 사회주의로서의 체제와 시장화에 따른 자본주의 방식의 공존에서 오는 모순에서 사회적으로 뇌물이 통용되고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

지면서 ‘북한 청년의 준법정신’이 문제가 될 소지가 존재

- 한류(韓流)의 영향과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여 자국(自國)에 대해 냉소적인 경향을 갖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물질만능적 태도를 보유

Ⅲ. 통일을 위한 한국 청년의 역할

o 현재 한국의 청년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세대이지만, 실상은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를 넘어 최근엔 **‘N포세대’**(주거, 취업, 결혼, 출산 등 포기)라고 불리고 있는 실정

o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 3·1운동, 4·19혁명, 6월 민주항쟁 등 청년이 역사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o 통일 운동에 있어 한국 청년의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이며, 통일은 ‘외부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닌 ‘민족 내부의 동력’으로 달성 되어야 할 역사적인 과제

o 국제 정세의 측면 역시, 한·미 관계 및 미·중 관계가 우호적인 시점으로 통일 여건을 우리 스스로 적극 형성해 나갈 시점

o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통일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한 주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통일을 실현해 나갈 절호의 조건이 충족

o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닌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실력과 국제 감각을 겸비한 한국 청년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 〈끝〉

【 발 제 문 2】

‘통일의 미래상과 청년의 역할’

주승현 연세대학교 통일학 박사, 북한이탈청년

- 탈북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 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청년의 역할 제시
- 탈북실태와 현황, 탈북자로서 꿈꾸는 통일의 미래상

o 필자는 17살에 북한군에 입대해 비무장지대(DMZ)에서 6년간 심리전 방송요원으로 근무하다 철책선을 가로질러 한국으로 왔다.

o 90년대와 2000년대를 비무장지대에서 지내며 경험했던 것은 분단은 잔인하지만 한편으로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고, 그 역동성은 통일에 대한 또 다른 희망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었다.

o 비무장지대에서 상대 초소에 총격을 가하고 하루 종일 대북·대남 방송을 통해 서로를 비방하던 90년대가 가고, 철책선과 지뢰원을 들춰낸 자리에 철도와 도로를 닦아 왕래하던 2000년대의 모습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이분법이 상호연관성으로 다가왔던 시절이었다.

o 한국에 온 후 당시의 기억으로 정치학을 전공했고 분단과 통일을 연구주제로 삼고 공부를 했는데, 남북한의 잔혹한 분단사를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o 70년 분단사에 배태(胚胎)된 적대와 증오가 흘러온 시간만큼 이와 비례해서 향후 통일이 가져다줄 혼란과 충돌을 생각하며 답답함과 통증을 호소해 왔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내가 찾고 있는 통일의 희망이 있다면 바로 청년들이다. 일각에서는 전쟁과 고난을 겪어 보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물질적이며 이기적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통일의 주역은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청년 세대이며 또 청년세대일 수밖에 없다.

o 왜냐하면 다가오는 한반도의 통일은 청년세대가 마주해야 할 통일이며 통일국가는 청년세대가 살아가야 할 미래이기 때문이다. 과거 기성세대가 분단시대의 언술을 넘어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면 그러한 값진 경험과 소중한 자원으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청년세대의 몫인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네 가지 차원에서 청년들에 의한 통일운동과 통일준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o **첫째**, 현재 조기 통일의 가능성과 함께 통일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이익이라는 통일긍정론이 대두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도 한층 높아진 상태이다. 이러한 주변 현실 속에서도 막상 우리국민들의 통일태도와 의지는 아직까지도 요지부동이다. 통일이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것은 얼마만큼 통일에 관심을 갖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준비를 정부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청년중심의 통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60년대 '6월 항쟁'과 80년 '민주화의 봄'은 청년들에 의해 가능했다. 다시 한 번 대학가와 전국에서 통일운동이 청년들에 의해 요원의 불길처럼 지펴진다면 우리사회의 통일준비는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이다.

o **둘째**, 독일의 통일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열망한 청년들이 그 기폭제가 됐다. 현재 남북한 청년들의 왕래와 교류가 가능하지 않지만 한국에 입국한 2만 7천명의 북한이탈주민 중에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탈북청년들이 1,500명에 달하고, 청소년 학생들도 2,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남한의 청년들과 탈북청년들은 분단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다함께 분단체제에서 태어나 '선진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도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의 경험을 알려주고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보완점은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탈북청년들과 남한청년들이 마음과 힘을 합쳐 통일운동에 나선다면 통일열망을 부르는 촉매제로, 남북통합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o **셋째**, '통일대박론'이 한국사회의 화두인데 그 요지는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 대박이며 특히 청년들이 그 수혜자라는 사실이다. 나도 청년세대의 입장에서 한국 청년들이 겪는 고통은 똑같이 느끼며 살아왔다. 경쟁의 고통, 취업의 고통,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입시전쟁이나 분단으로 인한 청년 징병제와 같은 문제도 통일이 된다면 한꺼번에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일로 인한 편익이나 수혜를 넘어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통증에 청년들 스스로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통일대박론'에 맞선 '통일쪽박론'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준비하지 못한 통일이 재앙일 수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분단의 역사나 그 고통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통일 후 또다시 '재분단'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청년세대가 짊어져야 함을 청년들 스스로가 자각하는 것이다.

o **넷째**, 지금까지의 통일논의가 분단관리 차원에서 수세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통일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몇몇 전문가들만이 사유했던 통일문제를 청년들 중심으로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실상 통일문제는 분단문제의 이해와 극복에서의 출발을 요구하며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고 통일 후 어떤 상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카데믹한 토론과 원숙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분단문제의 이중성과 중층성을 비롯하여 통일문제의 다중성과 복합성까지도 함께 다루어야 하는 것은 분단문제의 해결 속에서 통일의 열쇠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통일전문가, 통일시대의 리더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o 한때는 북한에서, 또 한때는 분단의 경계선에서 그리고 지금은 한국 사회에 살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는 통일만이 모두가 살 길이라고 고집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한 통일이 아닌 민족의 장래와 남북한 주민 모두의 안위가 걸려있는 통일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통일이다. 그러한 통일의 문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열어야 한다. 그 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온 기성세대로부터 받는 소중한 바통이며 통일국가 안에서 한민족이 다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선이기 때문이다. 〈끝〉

〈 MEMO 〉

【 발 제 문 3】

‘통일의 미래상과 청년의 역할’

구정우 연세대학교 통일학 석사, 중국 청년

- 중국인으로서 바라보는 한반도 통일
-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북한을 보는 중국인들의 인식
- 중국을 대표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해 말하고 싶은 생각과 청년의 역할

Ⅰ. 필연적인 통일의 길

o 한반도 통일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되는 일이다. 역사란 분열과 통합의 연속이며, 이에 중국에는 ‘분구필합 합구필분’(分久必合 合久必分)이라는 말이 있다. 삼국연의의 첫 구절이기도 한 이 말은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중국과 한국 역사에 있어서 딱 맞아 떨어지는 예언과도 같은 말이 아닌가 싶다. 남북한은 너무나도 오래 떨어져 있었으며, 하루빨리 통일을 하여야 이질성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o 그렇다면, 왜 꼭 통일을 해야만 하는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오히려 우리로서는 더 안정적인 생활이고, 통일 후에 닥칠 여러 가지 급변사태, 혹은 돌발 상황들이 우리들을 오히려 더욱 더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

o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크게 소극적 이유와 적극적 이유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인 이유로는 분단국가로 인한 고통의 해소를 들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산가족이 분단으로 인한 고통 해소, 분단국가로서 오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 등을 해소 할 수 있다.

o 적극적인 이유로서는 한민족이 통일을 함으로써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 자신의 위상과 더 나아가 경제적 효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o 이 두 가지의 이유를 '**당위론**'과 '**실용론**'의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당위론**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족은 옛날 옛적 '단군신화'로부터 뿌리지어 내려 온 하나의 민족이고, 잠시 분단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북 이산가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의 국가로 합쳐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위론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이유를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 중 하나로 손꼽힌다.

o **실용론**은 말 그 자체에서 표현하듯이 단순히 한민족이라서 통일을 하기 보다는, 통일을 하면 실제적으로 얻게 될 '이익'과 '편익'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뜻은 한반도 통일을 하되, 통일을 하기위해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불안의 해소, 경제적 효익, 국가의 위상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선택적 과제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1)]

Ⅱ.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o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1.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
2. 통일모델은 한반도 내 국민들의 결정에 의하며, 중국은 이를 완전히 존중한다.
3. 한반도 유사사태 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무력으로 통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 급변사태를 이용하여 단독적으로 군사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1) 민족 통합의 당위론과 실용론에 관해서는 강광식, 『통일문제에의 실용주의적 접근: 그 필요성과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담론 '형성과 창조' 제2회 모임 발표 논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8. 24), p. 46. 참조.

4. 통일 후에는 주변국과의 전략적 균형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중미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
5. 중국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특히 난민문제).

o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북한을 보는 중국인들의 인식

1. 중국과 북한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준(準) 동맹 국가 관계'다. 이것은 냉전특수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중국의 제5대 지도자와 북한의 제3대 지도자, 그 누구든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역사문제로 인해, 중국이 북한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지원은 불가피한 책임이 있다.
3.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과 북한은 사실상 '준(準) 동맹 국가 관계'에서 멀어졌다고 할 수가 있다. 한반도의 안정적인 유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개혁개방 등 면에서 중대한 갈등을 가져오고 있었다.
4.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단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중국은 냉전시기 중국의 지도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o 북한의 붕괴 또는 급변사태로 촉발되는 한반도 유사상황 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전체로서의 한국**' 또는 '**남북한 특수 관계론**'을 근거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o 한편,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한국이 단독 군사 개입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하지만, 국제법의 이론상 '**똑같은 주변국**'으로서 중국 역시 '**정전협정의 당사국**'이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으로서 개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중국학자들의 한국군의 단독 파병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는 한국과 북한은 한민족으로서 특수시기, 특수상황에 의해 분단된 특수한 관계로서 이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o 단, 미국이 3.8선을 넘어 개입 할 시 이 상황은 다른 문제이다. 미국이 개입 할 시 중국은 핵심적인 이해 당사국이자 북한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로서 자동적으로 이에 연관될 수밖에 없다. 즉,

한미동맹은 북한을 대비하기 위해서이지 중국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동맹이 아니다. 미군이 3.8선을 넘어 주둔하고 한국군의 힘으로 북한사태를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면 UN군 혹은 중, 한, 미, 일, 러 등 군대가 파병되어 주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Ⅲ. 통일에 있어서의 청년의 역할

o 통일은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것이다. 이것이 젊은 청년세대와 이전 세대와의 제일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또한 남북한 통일은 남북한 사이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적인 문제이자 동북아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게 될 중대한 사안이다.

o 또한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기필코 주변국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 청년들은 남북한, 작은 범위 내에서 시야를 좁혀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로 유럽연맹처럼 우리 동북아에서도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상할 것이 요구된다.

〈 MEMO 〉

【 발 제 문 4】

‘통일의 미래상과 청년의 역할’

승설향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북한이탈청년

- 청년으로서 북한에서의 삶과 남한에서의 달라진 삶
- 통일의 필요성과 탈북자로서 바라본 한국의 청년의 모습
- 탈북자 처우와 개선해야할 점, 미래 지향점과 통일의 미래상

Ⅰ.문제제기 : 청년으로서 북한의 삶과 남한에서의 달라진 삶

o 저는 새터민 청년으로서 북한에서의 고된 삶의 과정과 목숨을 건 탈북 시도, 그리고 지금의 한국에 정착하여 자신만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외조모님이 재단사였으며, 어머님은 재봉사이고, 저는 모자 장사한 경험을 가진 대물림의 시스템 사회에서 살다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면서 희망이 없는 북한 땅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사회에서 인간의 생존권을 위해 삶을 살아온 경험과 한국의 노동 직업을 통해 청년으로서 꿈을 만들어가는 삶의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o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개인의 능력과 재간을 살려 원하는 직업을 찾습니다. 성인이 원하는 직업을 찾거나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기본 권리입니다.

o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지구상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지구의 무궁한 자원을 개발하고 다스리며 그에 따라 얻어지는 재물을 먹고 나누며 살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처럼 일하지 않아도 과자로 된 집에서 살고 살아 있는 돼지에 포크가 찍혀있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사과가 입안으로 굴러 들어온다면 그곳은 이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꿈이자 상상일 뿐일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노동이 필요하며 노동을 통해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물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o 국가는 개인들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개인이나 기업체가 노동력을 통해 이윤과 유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보장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게 국가가 감시합니다.

o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비롯한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국가로부터 정당하고 동등한 노동력을 인정받아야 하며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력에 의한 대가의 차이도 인정받고 보장받아야 합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안 되고, 젊은 주부가 물건을 팔면 안 되고, 일할 수 있는 젊은 남자가 물건을 팔면 안 되는 식의 기준은 분명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본인이 원한다면,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 수 있고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o 공장과 기업소에서 물건을 만들면 상점이나 장마당을 통해 유통이 됩니다. 농사꾼은 쌀과 부식물을 비롯한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그 역시 국가나 개인, 장마당을 통해 유통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기술력에 따라 기업소에서도 일하고 상점이나 장마당에서도 일을 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범죄와 연관이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모든 노동은 신성한 것이며 노동을 했으면 그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인정받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제가 살아왔던 북한 체제는 국가가 소유하여 운영하는 체제이기에 본인의 꿈을 펼치거나 활성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북한에서는 생계를 위해.. 한국사회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꿈과 비전,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의 모습으로.. ”

o 북한에서는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모자장사를 하게 되었다면, 한국사회에서는 자신이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 이외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의 성숙한 모습으로 있게 된 것이 과거와 현재의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대 청년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각종 사회활동에 성실히 참가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특산물을 전 세계로 판매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o 제가 가진 북한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보다 발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북한에서의 삶과 남한에서 삶의 달라진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Ⅱ. 통일의 필요성과 탈북자의 시선에서 본 한국 청년의 모습

o 청년이라면 누구나 ‘N포세대’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최근 취업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신조어입니다. ‘N포세대’란 사회적·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뜻합니다.

o ‘N포세대’의 시작은 ‘3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3포세대’에 이어 주택구입과 인관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가 등장했고, 잇따라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세대’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우리 청년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N포세대’로 규정됐고, 최근 SNS에서는 ‘흙수저 빙고’를 통해 빙고를 만들어 올리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흙수저’란 ‘금수저’의 반댓말로, 빙고 판에는 ①집에 욕조 있음 ②부모님 건강 검진 안받음, ③집에 곰팡이 핀 곳 있음’ 등이 적혀 있고,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며 자신이 ‘흙수저’임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o 이는 청년세대들의 지독한 좌절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과 희망, 끈기, 노력이 아닌 이제는 ‘돈’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돈’만 있다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삶일까 생각해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지탱조차 하기 힘든 저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날로 지쳐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만드는 돌파구가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는 남북한 청년이 아니라, ‘N포세대’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미래의 주역이 되어야… ”

o 올해는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은 천년 이상 통일국가를 이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에게 ‘민족통일’이란 자연스런 일이고, 현재의 분단 상황은 한국사에서 매우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인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한국은 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웃국가와 불과 두 세 차례 전쟁을 치렀을 뿐입니다. 한국인에게 이웃국가와의 평화공존은 전쟁보다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사에서 한국은 늘 평화적 외교노선을 취해왔습니다.

o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대결로 소중한 자원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한의 60만 병력과 북한의 120만 병력, 도합 180만 명의 한민족 청년들이 휴전선에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으며, 남한 정부재정의 약 10%가 국방비로 사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o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는 남북한 청년이 아니라, 'N포세대'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미래의 주역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Ⅲ. 새터민 정책의 현실과 통일의 미래

o 현재 우리정부는 '통일대박'이라는 모토를 제기하며 나라 전체가 통일에 대한 핑크빛 꿈을 꾸고 있는 듯합니다. 2014년 신년 첫 기자회견 이후 박근혜정부의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피력되어 오고 있습니다.

o 이후 '통일대박론'은 찬반 의견을 낳으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통일이 대박이다"라는 말이 현실 속에서 얼마만큼 진전되어 왔는지 또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디쯤 와 있는지, 국민전체가 동참할 정도의 연대로 넓혀가고 있는지는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o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주민들의 동의와 그들의 마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과 통일 이후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통일 공동체를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o 그렇다면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환경 속에서 생활해 온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북한에서 살다 한국에 정착하게 된 탈북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잘 알고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현재 우리사회가 그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사회적 상황 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후 북한주민들과의 이질성의 틈을 메워줄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o 문제는 현재 '먼저 온 통일 세대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2만8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있지만 70년간의 분단에서 오는 이질감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낯설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시 한국을 떠나 선진국으로 망명하고,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선배들이라 하더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현재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 탈북민 2만8천여 명을 포용한다는 것은 그들의 뒤에 있는 북한에 남아있는 2천450만의 북한주민들을 포용하는 것 "

o 새터민들이 당면한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포용력과 관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탈북민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을 한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탈북민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

o 탈북민 2만8천여 명을 포용한다는 것은 그들 뒤에 있는 북한에 남아있는 2천450만의 북한주민들을 포용하는 일이며 그들의 마음을 얻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성공적인 통일준비의 첫걸음은 탈북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우리는 탈북민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o 이에 저는 통일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첩경은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따듯하게 포용하고, 동행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o 통일준비와 통일이후의 상생을 고려해 본다면, 탈북민들을 포용하는 일이야말로 '북한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첫출발'이며 '통일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지혜'이자 '현실적 준비가 되는 실천덕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o 통일의 시작은 정부의 정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회적 관심과 포용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생존과 행복이 보장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포용이 바로 통일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이념갈등이나 사회분열이 아닌 공존하는 미래 통일의 상이라고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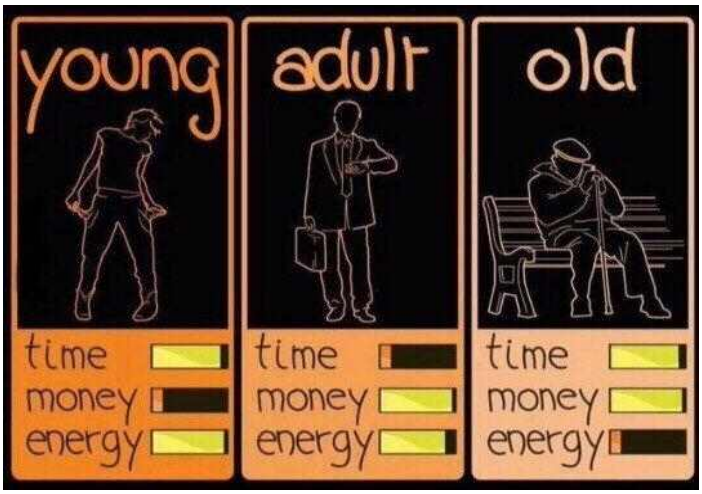
〈 MEMO 〉

【 발 제 문 5】

‘통일의 미래상과 청년의 역할’

박현우 한반도통일연구원 사무국장

- 분단된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청년의 역할
-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 靑年, “통일로 돌파하라!”



□ 청년의 오늘 그리고 내일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
Yesterday is History / Tomorrow is Mystery / Today is Present **(영화 쿵푸팬더 中)**

o 청년의 오늘

- 청년, **『사다리타기』**와 **『사다리 걷어차기』**에 서다
  - (멘토의 시대)와 (상실의 시대)

① **(멘토의 시대)**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사장 **『사다리타기』**

> “ 인생은 항상 사다리다. 사다리타기에서 한 줄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듯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도 있으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

② **(상실의 시대)** 장하준 캠브리지대학 교수 **『사다리 걷어차기』**

> “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는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권고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전에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용했던 제도나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
> (Kicking Away the Ladder)

o 청년, 알바가 갑(甲)이다!

- “500만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 **(2015년 알바몬 TV 광고)**
- 청년 실업자 100만명, 학생 알바도 60만명 돌파 **(2015.03.11 기재부·통계청)**
- 정부가 규정한 알바 인력은 △학업 또는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청년 △가사 및 돌봄 노동을 병행하는 여성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부업을 병행하는 직장인 **(2014.03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o 청년, 아프니깐 청춘이다(?)

(1) 불필요한 스펙 경쟁, 일자리 미스매치까지, 두 번 우는 취준생
- 쉬는 것도 두려워 끊임없이 스펙을 쌓는 공휴族* 등장
- 10명 중 4명, 전공과 관련 없는 직종에 종사

(2) 취업 前 학자금 대출, 취업 後 주택담보대출까지, 빚에 허덕이는 청년
- 2030 직장인 중 40%가 채무자
- 채무 이유는 △43%가 학비 마련, △32%가 주택 마련

(3) 겉만 화려한 모피스族*, 현실은 앵그리맘(Angry Mom)

*모피스족: 미시(Missy)와 오피스(Office)의 합성어로 전문적이고 세련된 직장여성을 뜻하는 신조어

(여연브리프 Vol.2015-01, 2014년 전국 2030직장인 실태조사)

o 청년, 말뿐인 위로보다 처방이 필요하다!

- KBS 『뉴스 7』 앵커 클로징 멘트 (2015.03.15)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위안문구에 요즘은 청년들이 오히려 반감을 드러내고 있죠. 아프면 처방전,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지 말로 하는 위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청년 실업, 이대로 두면 그 피해는 결국 전세대로 이어집니다."

o 청년의 내일

• 청년, 『**도전정신**』으로 내일을 개척하다

- 박지성 SBS 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 출연 中 (2014.06.15)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도전을 안 해"

-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 젊은이는 꿈을 꾸어야 한다. 역사는 꿈꾸는 사람의 것이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을 키우는 사회, 꿈을 공유하는 민족만이 세계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젊은이가 꾸는 꿈은 순수해야 한다. 증류수처럼 맑아야 한다. 또 그 꿈은 원대해야 한다. 옹졸하고 조잡한 꿈은 젊은이의 몫이 아니다. 젊은이는 가슴 속에 우주를 품고 살아야 한다. 그처럼 큰 이상으로 충만해야 한다. 한 철학자는 말했다. 젊은이가 이상을 갖지 않는 것은 정신적 자살이나 다름없다고. 그러니 젊은이여, 꿈을 꾸라. 순수하고 밝고 원대한 꿈을 꾸라."

(부제: 내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P.208)

□ 청년의 미래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

o 통일의 아침

-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실업, 빈부격차, 노령화의 통증을 무엇으로 해결? '통일'이 가져다 줄 폭발적 시장의 확대만이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이 심각한 통증을 치유할 처방이 될 것.

o 통일은 경제

- 통일비용의 대부분은 투자비용임. 투자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고, 통일 한국의 경제력은 놀라운 도약을 할 것으로 전망.

- 세계적 투자자문회사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세계경제보고서(2007.03/2009.09)』(Global Economics Paper)는 30~40년 안에 통일 대한민국의 GDP가 프랑스, 독일, 일본을 추월하고 2050년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전망.

- "2020년 전후, 남북 합병이 가능할 것이며 나의 전재산을 투자할 것" (美 로저스 홀딩스 J. Rogers회장, 2013.5)

o 통일은 인권

-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임. 인권은 한 나라 안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정치 영역이기도 함.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 믿지 못할 정도로 냉담한 상황.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설치됐지만 국회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

-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은 명백히 '우리 국민'에 속함.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권'임. 국가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함. 지금도 북한 정치범수용소에는 수십 만 명이 갇혀 참혹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음.

- 오준 한국대표부 대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즉흥연설 (2014.12.22)

> "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그냥 아무나(anybodies)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이산가족에겐 아직 북쪽에 그들의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겨우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북한의 인권 유린을 고발한) 유엔 북한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고,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비극을 겪은 듯 눈물을 흘립니다. 부디 훗날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 볼 때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 "고조, 아랫동네 사람들(남한)은 우리 인민들이 핍박 받고 있을 때 뭐하고 있었네?" 이 질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가?

o 통일은 기회의 창(窓)

- 통일은 우리들 마음의 열정으로 이루어짐. 머리와 계산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음. 독일 분단의 벽을 허문 것도 서독 주민들의 열망, 동독 주민들의 열정이었음.

- 통일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모순을 일거에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임. 북쪽에서는 식량이 없어 굶주리고, 남쪽은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고 있음.

- 북(北)은 낡은 체제의 질곡(桎梏) 속에 갇혀있고, 남(南)은 벌어지는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음. 분단을 허물지 않는 한, 이 모순을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 않음. 결국, 통일만이 새로운 기회의 창(窓).

o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

① 통일에 대한 헌신적인 열망과 국민적 합의
② 북한의 진정한 주인이자 변화 주체인 주민 의사
③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

□ 靑年, 『**미래자결주의**』 통일을 꿈꾸다

- 도산 안창호 선생

> "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 하는가 "

- 백범 김구 선생 답설시(踏雪詩)

> 踏雪野中去 (답설야중거) :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 不須胡亂行 (부수호란행) :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 今日我行跡 (금일아행적) :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 遂作後人程 (수작후인정) :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 안중근 『동양평화론』과 유럽연합(EU)

"동양평화회의 구성, 공동은행 설립, 공용 화폐 사용, 공동 군대 조직" 구상

踏雪野中去 (답설야중거) :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不須胡亂行 (부수호란행) :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今日我行跡 (금일아행적) :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遂作後人程 (수작후인정) :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